

새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재미가 있지요. 아름다운 깃털을 자랑하는 팔색조가 아니더라도, 모든 새는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깃털로 멋이 있습니다. 물 찬 제비와 같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모든 새들이 머리부터 몸매, 꼬리까지가 아름다운 여성들처럼 날씬합니다. 지구상에는 약 8,600여 종의 새들이 있습니다. 이 수천 종의 새들의 노랫소리는 모두 다릅니다. 30~40년을 산 속에서 새들과 함께 살아온 저는 몇 음절만 들어도 그것이 어떤 종의 새소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도보로, 자전거로, 오토바이로, 좀 낫게는 고물자가용으로, 새를 찾기 위해 30여 년 동안 전국을 누빈 인생입니다. 독자들도 들판이나 야산을 다녀 보세요. 새소리를 들으며 걷는 걸음도 즐겁지만, 맑은 공기도 마시고 다리 힘도 기를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입니다. 산을 오르겠다면 제가 한 가지 조언을 할까 합니다. 산을 오를 때 정상을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사계를 즐기며 천천히, 한 발짝씩 걸어보십시오. 앞서 사람 따라 급히 갈 필요도 없습니다. 급한 걸음에 기척을 싫어하는 아름다운 새들이 놀라서 도망만 갈 뿐이지요.

설화에 등장하는 제비는 매년 양력 4월 7일 경기도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30년을 넘게 보아도 제비는 먼 타국에서 정확한 날짜에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백로류는 필리핀에서 겨울을 나고 5월 15일 경이면 먼 바다를 건너 들어옵니다. 철새의 본능이지만 용케 찾아오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마냥 신기할 뿐입니다.

자연과 함께 조류학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유일한 고등동물이라고 자랑하는 인간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질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새와 자연에게서 가르침을 얻었지요. 서당의 훈장님은 까마귀를 반포지효反哺之孝, 곧 효의 동물이라 하며 부모님에게 효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옛날 병풍에 그려진 기러기의 목화를 통해서도 부부의 질서, 효도의 질서 등 가문의 질서를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람인사 자의 풀로 날아

가는 기러기를 보며 “사람보다 기러기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러기도 사람인사 자를 안다는 것이지요. 이 같은 교훈은 경험 많은 우리 조상들이 산과 들을 다니며 체득한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정서가 메마른 것은 이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연 속에서 덩굴 가시에도 굽혀보고, 모기에게 물려도 보고, 배도 고파뻍야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만들 세상은 건강하고 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자연과 새를 좋아한 저는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희귀한 새가 전국 어디에 있다면 멀고 먼 전남 함평이라도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많은 새를 보고 또 보았지만, 새들과의 만남은 저를 여전히 황홀하게 합니다. 새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느냐는 물음은 그러니 엉뚱할 수밖에요.

자연과 조류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싶다면 조류학자나 식물학자들을 용기 내 만나보세요. 학자들은 그 관심을 반갑게 받아들이며 철새도래지나 희귀한 새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거짓말이 없는, 아름다운 자연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

글 | 윤무부(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조류학자)



새를 보는 즐거움과 나의 인생